

영보이 국어 2017국가직9급 국어(마책형)

2017사회복지직 국어(c책형)

자세하고 신선한 영보이 해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와 함께 신선하고 자세한 해설 올려 드립니다. 해설만 읽어도 기본서를 읽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영보이 암기법이 있어 매우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보실 때 칼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에 색깔이 칠해 있어 암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영보이 저서 -

◆ 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판매 중 >

◆ 영보이 공무원 한자와 그의 친구들 < 판매 중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실전문제집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실전문제집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실전문제집 < 출간 예정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자세히 찾고 직접 편집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수정본 다시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영보이 한자교재에서 그대로 나온 문제 ★ 영보이 한자교재는 같은 한자가 반복되어도 무한 반복의 효과를 위해 생략하지 않고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책 뒷부분에 있는 ‘영보이 스터디&확인학습’은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재 바로 영보이 공무원한자입니다.

*국가직9 문제14 ㉠說明(설명) 영보이 암기tip) 예를 변경하였습니다.

1. 설명(說明) - 영보이 한자 1권(p.102 explain(설명(說明)하다, 해명하다). / p.194 c)說(말씀 설): 說明(설명), 論說(논설), 說得(설득)

p.270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29	說明	
----	----	--

p.271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29	說明	설명
----	----	----

p.288 영보이 스테디 & 확인학습

75	說明	
----	----	--

p.289 영보이 스테디 & 확인학습

75	說明	설명
----	----	----

2. 논증(論證) - p.32 b)영어사전: argue(언쟁(言爭)하다, 논증(論證)하다), discuss(의논하다), discourse(담론, 담화).

3. 모순(矛盾) - p.27 1)의미: 결함(缺陷)이나 瑕疵(하자), 모순(矛盾) / p.42 ★향년(享年)과 지문에서 '정정하시다'는 말과는 모순(矛盾)되므로 알맞지 않다. 굳이 바꾸어 보자면 '금년(今年)에, 금세(今歲)에, 당세(當歲)에' 정도가 좋을 듯하다.

/ p.99 1)自己矛盾(자기 모순): 自(스스로 자) 己(몸 기) 矛(창 모) 盾(방패 순)

p.248 - 영보이 스테디 & 확인학습

7	矛盾	
---	----	--

p.249 - 영보이 스테디 & 확인학습

7	矛盾	모순
---	----	----

p.268 - 영보이 스테디 & 확인학습

50	矛盾	
----	----	--

p.269 - 영보이 스테디 & 확인학습

50	矛盾	모순
----	----	----

4. 야기(惹起) - p.93 1)야기(惹起): 惹(이끌 야) 起(일어날 기). 발음: [야기](긴소리)

p.268 영보이 스테디 & 확인학습

2	惹起	
---	----	--

p.269 영보이 스테디 & 확인학습

2	惹起	야기
---	----	----

5. 치열(熾熱) - p.33 ☺영보이 한자plus 1)熾烈(치열): 熾(성할 치) 烈(세찰 열) /

6. 파탄(破綻) - p.74 1)破綻(파탄): 破(깨뜨릴 파) 綻(터질 탄). 발음: [파:탄](긴소리)

a)의미: 일이나 계획 따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중도에서 그릇된다는 의미.

b)영어사전: bankruptcy(파산(破産), 파탄(破綻)) / p.98 3)破綻(파탄): 破(깨뜨릴 파) 綻(터질 탄). 발음: [파:탄](긴소리).

a)의미: 찢어져 터짐을 의미하거나 어떠한 일이나 계획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도중에 잘못된다는 의미.

b)영어사전: breakdown(고장, 실패, 분해) failure(실패), bankruptcy(파산. 파탄)

★**破綻(파탄)**에서 한자 ‘파’자와 ‘탄’자는 각각 ‘石(돌 석)’과 ‘糸(가는 실 맥, 실 사)’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우리 집 유리창은 **실(糸: 가는 실 맥)**로 감은 **돌(石: 돌 석)**을 여러 번 맞아 **破綻(파탄)**되었다. / p.157 2)**破綻(파탄)**: 破(깨뜨릴 파)綻(터질 탄). 발음: [파:탄](긴소리).

a)의미: 찢어져 터짐. 일이나 계획 따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잘못됨. 상업, 회사 따위의 재정이 지급 정지의 상태가 됨.

b)영어사전: breakdown(고장, 실패, 분해), bankruptcy(파산. 파탄).

★‘**破綻**’은 **파정**이 아니라 ‘**파탄**’이다.

p.262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33	破綻	
----	----	--

p.263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33	破綻	파탄
----	----	----

p.262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39	破綻	
----	----	--

p.263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39	破綻	파탄
----	----	----

p.268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40	破綻	
----	----	--

p.269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40	破綻	파탄
----	----	----

p.280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70	破綻	
----	----	--

p.281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70	破綻	파탄
----	----	----

7. **통찰(洞察)** - p.124 1)**洞察(통찰)**: 洞(뚫을 통, 마을 동) 察(살필 찰). 발음: [통:찰](긴소리).

a)의미: 전체를 환하게 내다보거나 예리하게 꿰뚫어 본다는 의미.

b)영어사전: discernment(식별, 인식, 통찰력), penetration(관통(貫通), 침투(浸透), 통찰력), insight(통찰력), fathom(헤아리다, 이해, 통찰)

★한자‘洞’은 ‘동 or 통’으로 소리가 난다. 예: 동리(洞里), **통찰(洞察)**

*동음이의 한자어

1)通察(통찰): 通(통할 통) 察(살필 찰).

a)의미: 책이나 글 따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훑어본다는 의미.

p. 160 4)**洞察(통찰)**: 洞(뚫을 통, 마을 동) 察(살필 찰) 발음: [통:찰](긴소리).

a)의미: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b)영어사전: discernment(식별, 인식, 통찰력), penetration(관통, 침투, 통찰력), insight(통찰력), discern(식별하다, 인식하다), fathom(헤아리다, 이해, 통찰)

★한자‘洞’은 ‘동 or 통’으로 소리가 난다. 예: 동리(洞里), 통찰(洞察)

*동음이의 한자어

1)通察(통찰): 通(통할 통) 察(살필 찰).

a)의미: 책이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훑어봄.

p.260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51	洞察力	
----	-----	--

p.261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51	洞察力	통찰력
----	-----	-----

p.260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54	洞察	
----	----	--

p.261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54	洞察	통찰
----	----	----

p.274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61	洞察	
----	----	--

p.275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61	洞察	통찰
----	----	----

p.282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26	洞察	
----	----	--

p.283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26	洞察	통찰
----	----	----

8.오한(惡寒) - p.142 1)미워할 오: 憎惡(증오), 好惡(호오), 惡寒(오한) / p.203 d)惡(미워할 오): 憎惡(증오), 好惡(호오), 惡寒(오한)

p.278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66	惡寒	
----	----	--

p.279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66	惡寒	오한
----	----	----

p.278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55	惡寒	
----	----	--

p.279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55	惡寒	오한
----	----	----

9.악한(惡漢) - p.142 2)악할 악: 善惡(선악), 惡行(악행), 惡漢(악한), 暴惡(포악)

p.278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69	惡漢	
----	----	--

p.279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69	惡漢	악한
----	----	----

p.278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58	惡漢	
----	----	--

p.279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58	惡漢	악한
----	----	----

10.사치(奢侈) - p.158 3)奢侈(사치): 奢(사치할 사) 侈(사치할 치)

p.280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88	奢侈	
----	----	--

p.281 영보이 스터디 & 확인학습

88	奢侈	사치
----	----	----

(문제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 구지가 -

- ① 조건 - 요구 - 위협 - 환기
- ② 위협 - 조건 - 환기 - 요구
- ③ 환기 - 요구 - 조건 - 위협
- ④ 요구 - 위협 - 환기 - 조건

(문제1)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

龜何龜何(구하구하) - 거북아 거북아 - 거북이를 불러 주의(注意)를 **환기**(喚起)함.
首其現也(수기현야) - 머리를 내어라. - 머리를 밖으로 빼라고 **요구**(要求)함.
若不現也(약불현야) - 내놓지 않으면 - 조건문을 사용하여 **조건**(條件)을 나타냄.
燔灼而喫也(번작이깍야) - 구워서 먹으리. - 구워 먹겠다고 **위협**(威脅)을 함.

- ① 조건-요구-위협-환기
- ② 위협-조건-환기-요구
- ③ **환기-요구-조건-위협** (O)
- ④ 요구-위협-환기-조건

◆ 구지가(龜旨歌): 구지봉(龜旨峯) 주위에 살던 구간(九干)과 그 백성들이 수로왕(首露王)을 맞기 위해서 부른 고대 가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 귀지가

(문제1) 정답: ③

(문제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2 / 2017

흐르는 것이 물 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sap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sap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sap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sap을 씻고' -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sap을 씻는다.
-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 ③ 화자는 'sap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 ④ 화자는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해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문제2)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2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2)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sap을 씻는다. (O)
◆ " ~ 강변에 나가 sap을 씻으며 ~ 일이 끝나 저물어 ~ 달이 뜨는구나 ~ '로 보아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sap을 씻는다.'
-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O)
◆ ' ~ 강변에 나가 sap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로 보아 올바른 지문이다.
- ③ 화자는 'sap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O)
◆ ' ~ sap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로 보아 화자 자신의 고달픈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화자는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해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X)

◆ ‘ ~ 흐르는 것이 물 뿐이라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 ’로 보아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삽자루를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로 보아 화자의 생활이 고되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2) 정답: ④

(문제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한자 성어로 적절한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3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3)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 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하고 재치 있게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 ① 吳越同舟
- ② 囊中之錐
- ③ 馬耳東風
- ④ 近墨者黑

(문제3)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3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3)

◆ “ 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 로 보아 정답은 **囊中之錐 (낭중지추)**이다.

① 吳越同舟(오월동주): 吳(성씨 오) 越(넘을 월) 同(한가지 동) 舟(배 주)

◆ 의미: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적대시하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으나 풍랑을 만나서 서로 단합하여야 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유의어

1) 同舟相救(동주상구): 同(한가지 동) 舟(배 주) 相(서로 상) 救(구원할 구)

a)의미: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같은 운명이나 처지에 놓이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서로 돕게 됨을 이르는 말.

2) 同舟濟江(동주제강): 同(한가지 동) 舟(배 주) 濟(건널 제) 江(강 강)

a)의미: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서로 원수(怨讐)사이라도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서는 같은 배를 타고라도 서로 돕는다는 말.

② 囊中之錐(낭중지추): 囊(주머니 낭) 中(가운데 중) 之(갈 지) 錐(송곳 추). (O)

1)의미: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

③ 馬耳東風(마이동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 영어사전: pouring water on a duck's back(오리 등에 물 붓기), preaching to the wind(바람에 설교하기)

*유의어

1)對牛彈琴(대우탄금): 對(대할 대) 牛(소 우) 彈(탄알 탄) 琴(거문고 금)

a)의미: 소를 마주 대하고 거문고를 탄다는 뜻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깊은 이치를 말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2)牛耳讀經(우이독경): 牛(소 우) 耳(귀 이) 讀(읽을 독, 구절 두) 經(지날 경/글 경)

a)의미: 쇠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

3)牛耳誦經(우이송경): 牛(소 우) 耳(귀 이) 誦(외울 송) 經(지날 경/글 경)

a)의미: 쇠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

4)風過耳(풍과이): 風(바람 풍) 過(지날 과, 재앙 화) 耳(귀 이)

a)의미: 귀를 스쳐가는 바람과 같이 들었는데도 흘려보낸다는 뜻으로, 전혀 개의치 않음을 비유하는 말.

④ 近墨者黑(근묵자흑): 近(가까울 근) 墨(먹 묵) 者(놈 자) 黑(검을 흑)

1)의미: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의어

1)近朱者赤(근주자적): 近(가까울 근) 朱(붉을 주) 者(놈 자) 赤(붉을 적)

a)의미: 붉은빛에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뜻으로, 주위(周圍)의 환경(環境)이나 여건이 중요(重要)하다는 말.

*반의어

1)마중지붕(麻中之蓬): 麻(삼 마) 中(가운데 중) 之(갈지) 蓬(쑥 붕)

a)의미: 삼밭 속의 쑥이라는 뜻으로, 곧은 삼밭 속에서 자란 쑥은 곧게 자라게 되는 것처럼 선한 사람과 사귀면 그 감화를 받아 자연히 선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제3) 정답: ② 囊中之錐(낭중지추)

(문제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4 / 2017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졌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가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

- ①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 ②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③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고 한다.
- ④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문제4)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4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4)

①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O)

◆ '~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 백화가 말했다. ~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로 보아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고 친근한 말로 다가간다.

②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X)

◆ '~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 '로 보아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처럼 가벼워 불편하지도 않았고 가벼운 느낌이었다고 생각했다.

③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고 한다. (O)

◆ '~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로 보아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한다.

④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O)

◆ ‘ ~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빼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 ’로 보아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문제4) 정답: ②

(문제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5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5)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문제5)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5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5)

◆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 (O)**
-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문제5) 정답: ③

(문제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6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6)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문제6)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6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6)

◆ 시망스럽다: 「형용사」 몫시 짓궂은 데가 있다.

◆ 시망스레: 「부사」 몫시 짓궂은 데가 있게

① 몫시 짓궂은 데가 있다. (O)

☺영보이 암기tip) 시망이는 오늘 시험을 망쳤다고 몫시 짓궂게 논다.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X)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X)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X)

(문제6) 정답: ①

(문제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7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7)

① 강행군

② 강기침

③ 강타자

④ 강염기

(문제7)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7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7)

① 강행군(強行軍): [강:행군](긴소리) - 「명사」

◆ 의미1. 어떤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함.

● 의미2. 무리함을 무릅쓰고 보통 행군보다 멀리 또는 빨리 행군함. 또는 그런 행군. 통상 시간당 4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행하는 보병의 행군을 이른다.

② 강기침: 「명사」‘마른기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X)

◆ 강기침에서의 ‘강’은 한자가 아니라 (몇몇 명사 앞에 붙어)‘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다른 예: 강더위 / 강모 / 강서리

③ 강타자(強打者):「명사」야구에서, 타격이 강한 타자.

④ 강염기(強鹽基)[강염기]「명사」-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과 양이온으로 완전히 해리되는 염기.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따위가 이에 속한다. ≒강알칼리.

☺영보이 point) 보기 ①, ③, ④는 모두 '강하다(strong)'라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린다.

(문제7) 정답: ②

(문제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8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8)

-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기본형: 갈다)
-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가 맛이 없다.(기본형: 불다)
-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기본형: 이르다)
-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기본형: 들르다)

(문제8)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8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8)

-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기본형: **갈다**)

◆ **갈다** :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

◆ 활용: 갈아, 가니[가:니], 가오[가:오]

-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가 맛이 없다.(기본형: 불다) (X) → **불다**

◆ 불다: 「동사」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 활용: 불어, 불으니, 분는[분:는]

◆ ‘불다’는 모음과 결합하여 활용할 때에는 ‘불어, 불으니’가 되지만 모음과 결합하지 않을 때에는 ‘분다, 분고, 분지’가 된다.

-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기본형: **이르다**)

◆ **이르다** : 「동사」 무엇이라고 말하다. / 타이르다.

◆ 보기 ③의 ‘일렀다’는 ‘타이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 활용: 일러, 이르니

-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기본형: **들르다**)

◆ **들르다** : 「동사」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 활용: 들러, 들르니

★ ‘들르다’와 ‘들리다’를 잘 구별해서 써야 한다.

● 들르다 -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 들리다 - 듣다(listen to)의 사동사

☺**영보이 암기tip**) 카페에서 파르페를 먹고 오락실에 들르다. < 파르페 - 들르다 >

(문제8) 정답: ②

(문제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9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9)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려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데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고 주세요, 해라.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톨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뿜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오정희, '중국인 거리'중에서 -

- ① 어머니의 주위에 대한 '나'의 수용
-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

(문제9)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9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9)

- ① 어머니의 주위에 대한 '나'의 수용 (O)

◆ '어머니는 돈을 들려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데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고 주세요, 해라. ~ 애라고 조금 주세요? ~ 나는 총알처럼 내뿜었다. ~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봐 허겁지겁 내쏘았다.'로 보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O)

◆ 어머니는 고기를 파는 중국인의 성향과 인품을 잘 아는 듯 아이에게 매양 같은 주의를 주었다.

-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X)

◆ 시간적 배경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시간적 배경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푸줏간인데 푸줏간은 단지 고기를 사는 공간일 뿐 특별한 공간적 배경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제가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이므로 제목을 보고 공간적 배경이 역할을 파악하는 것도 이의제기 대상이다.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 (O)

◆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덩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로 보아 자기의 생각을 들킨 듯한 웃음을 지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덩석 베어 내었다.

(문제9) 정답: ③

(문제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2017국가직9 마책형 문10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0)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태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체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문제10)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0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0)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O)

◆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로 보아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O)

◆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 ’로 보아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O)

◆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로 보아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X)

◆ ‘ ~ 그러나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로 보아 말을 통하지 않으면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문제10) 정답: ④

(문제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1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1)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 ①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 ②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 ③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 ④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문제11)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1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1)

①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O)

◆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로 보아 삼월 달은 아직 쌀쌀하여 꽃이 피지 않았고 ‘초생달이 시리다’로 보아 차가운 이미지를 짐작할 수 있다.

◆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공감각적 표현으로 시각의 촉각화이다.

②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X)

◆ 이 시에서 나비는 냉혹한 바다를 잘 모르는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나비가 의지가 부족하다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나비에 대해 방관적 자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③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O)

◆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로 보아 바다를 실체를 모르고 바다를 경험하다가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④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O)

◆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로 보아 나비는 ‘청(靑)무우밭’으로 꽃을 찾으려 했으나 냉혹한 바다를 경험하고는 지쳐서 돌아온다. 따라서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11) 정답: ②

(문제1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2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2)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

① ㉠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② ㉡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③ ㉢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④ ㉣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문제12)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2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2)

① ㉠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 ㉠개찰구 -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로 보아 적절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내들이 황금을 찾아 부자가 되고자 모이고 있는 공간이다.

② ㉡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X)

◆ ㉡금광 브로커 -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로 보아 구보는 '금광 브로커'를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광 시대를 비판하고 있다.

③ ㉢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로 보아 구보는 '금광 브로커'를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광 시대를 비판하고 있다.

④ ㉣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 -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로 보아 금광에 눈이 먼 사람들의 공간을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로 표현하고 있다.

(문제12)정답: ②

(문제13)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3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3)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웅위하고 산중에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야 ㉢백옥루 잔치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덕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하옵소서.”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알,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야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야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야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 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뻗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地)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중략)...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데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 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 ① ㉠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 ② ㉡ : ‘부인’이 꾸 꿈의 상황이다.
- ③ ㉢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④ ㉣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문제13)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3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3)

◆ 유충렬전(劉忠烈傳): 조선 시대의 군담 소설. 영웅의 기상을 가진 유충렬이 간신 정한담의 반란으로 항복할 위기에까지 처한 천자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잡아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으로, 작자와 연대는 알 수 없다.

① ㉠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O)

◆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나.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로 보아 길조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 길조(吉兆): 좋은 일이 있을 조짐. '좋은 조짐'으로 순화

② ㉡ : '부인'이 꾸 꿈의 상황이다. (O)

◆ '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로 보아 '부인'이 꾸 꿈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③ ㉢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O)

◆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야'로 보아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④ ㉣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X)

◆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는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지럽게 된 후에 너를 찾아 주인공 유충렬이 전쟁에 참여하여 많은 활약을 할 것이라고 암시해 주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

◆ 풍진(風塵):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나 시련.

◆ 복선(伏線):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

(문제13) 정답: ④

(문제14)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4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4)

< 보기 >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 ㉡묘사, ㉢서사,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① 說明	猫鯊	徐事	論證
② 說明	猫鯊	徐事	論症
③ 設明	描寫	敘事	論症
④ 說明	描寫	敘事	論證

(문제14)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4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4)

④ 說明 描寫 敘事 論證 (O)

㉠說明(설명): 說(말씀 설) 明(밝을 명)

◆ 의미: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 설명(說明)의 '설'자에는 '兄(말 형)'이 들어있다. 그리고 '명'는 '밝을 명(明)' 그 자체이다.

☺영보이 암기tip) 우리 형(兄: 말 형)은 그 사건을 명쾌하고 밝게(明: 밝을 명) 說明(설명)해 주었다.

㉡描寫(묘사): 描(그릴 묘) 寫(베길 사)

◆ 의미: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그려 냄'으로 순화. 발음: [묘:사](긴소리)

◆ 描寫(묘사)의 '묘'자는 '扌(손 수)'가 들어있다. 그리고 '사'자는 '宀(집 면)'이 들어있다.

☺영보이 암기tip) 골리앗의 손(扌: 손 수)을 描寫(묘사)를 할 때 사람들은 보통 골리앗의 손을 집(宀: 집 면)만하다고 한다.

㉢敘事(서사): 敘(차례 서) 事(일 사)

◆ 의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

◆ 敘事(서사)의 '서'자는 '上(위 상)'이 얼핏 보인다. 그리고 '사'는 '일 사(事)' 그 자체이다.

☺영보이 암기tip) 집안일(事: 일 사)이 많은 날 서사(敘事)의 방법으로 글을 쓰려거든 아래층에서 하지 말고 위(上: 위 상)층에서 해라.

㉣論證(논증): 論(말할 논/론) 證(증거 증)

◆ 의미: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

◆ 논증(論證)의 '논'자와 '증'자 모두 '言(말씀 언)'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어떤 일을 논증(論證)하려면 말씀(言: 말씀 언)을 조리 있고 또한 반복적으로 말씀(言: 말씀 언)을 조리 있게 해야 한다.

* 다른 보기 *

◆ 猫鯊(묘사): 猫(고양이 묘) 鯊(문절망둑 사) - 꿩이상어(꿩이상엇과의 바닷물고기)

◆ 徐事(서사): 徐(천천히 할 서) 事(일 사) - 태봉(泰封)의 광평성(廣評省)의 둘째 관직(官職) < 태봉(泰封): 901년에 궁예가 송악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 건국 당시 국호를 후고구려라 하였다가 905년에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태봉,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라고 하였다. 918년에 왕건에게 망하였다. ≡ 태봉국 >

◆ 論症(논증): 論(말할 논/론) 症(증세 증) - 병의 증세를 논술함.

(문제14) 정답: ④

(문제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5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5)

- ① 병이 씻은 듯이 날았다.
-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④ 옷가지를 이어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문제15)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5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5)

① 병이 씻은 듯이 날았다. (X) → 나았다

◆ 낫다: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

◆ 활용: 나아, 나으니, 낫는[난:는]

☺영보이 암기tip) 바나나를 먹은 후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 바나나 - 나았다 >

● 낳다: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

● 활용: 낳아[나아], 낳으니[나으니], 낳는[난:는]

☺영보이 암기tip) 호랑나비는 흰 알을 많이 낳았다.

< 호(ㅎ)랑나비 - 흰(ㅎ) 알 - 낳았다(ㅎ) >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X) → 넉넉지

◆ 넉넉하다: 「형용사」 크기나 수량 따위가 기준에 차고도 남음이 있다. / 살림살이가 모자라지 않고 여유가 있다. /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다. / 형세 따위가 제법 번듯하며 듬직하다.

◆ 보기 ②의 ‘넉넉하다’는 ‘형세 따위가 제법 번듯하며 듬직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안울림소리(ㄱ)와 결합할 때에는 ‘치’가 아니라 ‘지’가 옳다.

☺영보이 암기tip) 두더지는 넉넉지 않은 도토리를 지렁이에게 주었다.

< 두더지 - 넉넉지 - 지렁이 >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O)

◆ 잠그다: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

◆ 활용: 잠가, 잠그니

☺영보이 암기tip) 레이디 가가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가 두었다.

< 레이디 가가 - 잠가 >

④ 옷가지를 이어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X) → 이어서

◆ 잇다: 두 끝을 맞대어 붙이다.

◆ 활용: 이어, 이으니, 잇는[인:는]

☺영보이 암기tip) 꾸물거리지 말고 옷가지를 어서 이어라. < 어서 - 이어라 >

(문제15) 정답: ③

(문제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6 / 2017 사회복지직 c책형 문16)

- ① ㅇ
- ② △
- ③ π
- ④ 병

(문제16)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6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6)

- ① ㅇ
- ② △
- ③ π
- ④ 병 (X)

- ‘병’은 ‘순경음 비읍’으로 ‘훈민정음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다.

☺영보이 암기tip)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 강남미사일 >

초성(初聲)의 제자 원리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제자 원리
아음(牙音)	ㄱ	ㅋ	ㆁ	어금닛소리
설음(舌音)	ㄴ	ㄷ, ㄸ	ㄹ	혓소리
순음(脣音)	ㅁ	ㅂ, ㅃ		입술소리
치음(齒音)	ㅅ	ㅈ, ㅉ	ㅊ	잇소리
후음(喉音)	ㅇ	ㆁ, ㆅ		목청소리

중성(中聲)의 제자 원리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제자 원리
ㆍ	ㆁ, ㅁ	ㆅ, ㅅ	하늘의 모양
ㅡ	ㅁ, ㅂ	ㅅ, ㅈ	땅의 모양
ㅣ			서있는 사람의 모습

◆ 초성 17자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ㄱ	ㅋ	ㆁ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ㅈ, ㅉ	ㅊ	
ㅇ	ㆁ, ㆅ		
5개	9개	3개	초성 17자

◆ 중성 11자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ㆍ	ㄴ, ㅌ	ㄴ, ㅌ
ㅡ	ㅌ, ㅍ	ㅌ, ㅍ
ㅣ		

(문제16) 정답: ④

(문제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7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7)

- 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 ②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 ③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 ④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문제17)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7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7)

- 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X) → 안된다

◆ 안: ‘안되다’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안돼 큰일이다.
- ◆ 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

- ②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X) → 시간V만에

◆ 만: (흔히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 십 년V만의 귀국
- ◆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V만에 떠났다.
- ◆ 그때 이후 삼 년V만이다.
- ◆ 도대체 이게 얼마V만인가.

- ③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X) → 잘할뿐더러

◆ -ㄴ뿐더러: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 새 일꾼이 일도 잘할뿐더러 성격도 좋다.
- ◆ 라일락은 꽃이 예쁠뿐더러 향기도 좋다.

- ④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O)

◆ ‘한밤중’은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조사(에)도 앞말과 붙여 쓴다.

	장	사	가	잘	안 된 다 .		농 사 가	안 돼				
	공 부 가		안 돼 서		두		시 간 V 만 에		떠 났 다 .			
	십	년 V 만 의		귀 국			이 게	얼 마 V 만 인 가 .				
	그 때		이 후		삼 년 V 만 이 다 .							
	그 는		일 을		잘 할 뿐 더 러		성 격 도	좋 다 .				
	일 도		잘 할 뿐 더 러			꽃 이	예 뵈 뵈 더 러					
	한 밤 중 에		전 화 가									

(문제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8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8)

-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문제18)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8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8)

-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X) → 灼熱(작열)

◆ 灼熱(작열): 灼(사를 작) 熱(더울 열) -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

● 熾熱(치열): 熾(성할 치) 熱(더울 열)

*동음이의어

1) 治熱(치열): 治(다스릴 치) 熱(더울 열) - 병의 근원이 되는 열기를 다스림

■ 以熱治熱(이열치열): 열은 열로써 다스림. 곧 열이 날 때에 땀을 낸다든지, 더위를 뜨거운 차를 마셔서 이긴다든지, 힘은 힘으로 물리친다는 따위를 이를 때에 흔히 쓰는 말이다.

2)熾烈(치열): 熾(성할 치) 烈(매울 열(렬)/세찰 열(렬)) - 기세나 세력 따위가 불길
같이 맹렬하다.

■ 기업 간의 생존 경쟁이 熾烈(치열)하다.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X) → 荊棘(형극)

◆ 荊棘(형극): 荊(가시나무 형) 棘(가시 극) - 나무의 온갖 가시. / '고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荊棘(형극)의 '극'자는 '가시 극(棘)'으로 '刺(찌를 자, 찌를 척, 수라 라(나))'와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 '가시 극(棘)'은 '나무 목(木)'이 두 번 들어가지만 '찌를 자(刺)' '칼 도(刂)'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자.

☺**영보이 암기tip** 다리에 주리를 틀 때 양쪽 나무(木)로 다리를 비틀게 하는 荊棘(형극)을 당하게 된다.

☺**영보이 암기tip** 刺戟(자극)을 줄 때는 칼(刂: 칼 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X) → 惡寒(오한)

◆ 惡寒(오한): 惡(미워할 오, 악할 악) 寒(잘 한)

● 惡漢(악한): 惡(미워할 오, 악할 악) 漢(한수 한, 한나라 한, 신년 탄)

☺**영보이 암기tip** '惡'은 '미워할 오'와 '악할 악'으로 발음이 되는데 '惡漢(악한)'으로 쓰일 때는 '나라 한(漢)'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한자 '惡'은 '미워할 오, 악할 악' 등으로 소리가 난다.

1)미워할 오: 憎惡(증오), 好惡(호오), 惡寒(오한)

2)악할 악: 善惡(선악), 惡行(악행), 惡漢(악한), 暴惡(포악)

*동음이의어

1)嗚咽(오열): 嗚(슬플 오) 咽(목멜 열, 목구멍 인, 삼킬 연).

a)의미: 목메어 울.

b)영어사전: sob(흐느껴 울다), wail(울부짖다, 통곡하다), weep(울다, 눈물을 흘리다)

★한자 '咽'은 '목멜 열, 목구멍 인, 삼킬 연' 등으로 소리가 난다.

1)목멜 열: 嗚咽(오열)

2)목구멍 인: 咽喉炎(인후염), 耳鼻咽喉科(이비인후과)

(문제18) 정답: ①

(문제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9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9)

- ① ‘ㄴ, ㄹ, ㅇ’은 유음이다.
-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 ③ ‘ㅡ, ㅣ, ㅏ’는 후설 모음이다.
- ④ ‘ㄱ, ㅋ, ㆁ, ㆑’는 원순 모음이다.

(문제19)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9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9)

① ‘ㄴ, ㄹ, ㅇ’은 유음이다. (X) → ‘ㄴ, ㄹ, ㅇ’은 비음이다.

◆ 비음(鼻音):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ㄴ’, ‘ㄹ’, ‘ㅇ’ 따위가 있다. ≒콧소리

☺영보이 암기tip) 비음을 내는 나무야

ㄴ 야 ㄹ 야 ㅇ 야 ~ ㄴ 야 ㄹ 야 ㅇ 야 ‘비음’을 내는 ㄴ 야 ㄹ 야 ㅇ 야~

● 유음(流音):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국어의 자음 ‘ㄹ’ 따위이다. ≒흐름소리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O)

◆ 마찰음(摩擦音): 입 안이나 목청 따위의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소리. ‘ㅅ’, ‘ㅆ’, ‘ㅎ’ 따위가 있다. ≒갈이소리.

● 파열음(破裂音):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ㄴ’, ‘ㅋ’ 따위가 있다.

■ 파찰음(破擦音):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소리. ‘ㅈ’, ‘ㅉ’, ‘ㅊ’ 따위가 있다. ≒불갈이소리.

③ ‘ㅡ, ㅣ, ㅏ’는 후설 모음이다. (O)

◆ 후설 모음: 혀의 정점이 입 안의 뒤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모음. ‘ㅡ’, ‘ㅣ’, ‘ㅏ’, ‘ㅑ’, ‘ㅓ’, ‘ㅕ’ 따위가 있다. ≒뒤혀흡소리, 뒤흡소리, 후모음

④ ‘ㄱ, ㅋ, ㆁ, ㆑’는 원순 모음이다. (O)

◆ 원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 ‘ㆁ’, ‘㆑’, ‘ㄱ’, ‘ㅋ’ 따위가 있다. ≒둥근흡소리

단모음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ㅓ
중모음	ㅐ	ㅑ	ㅕ	ㅗ
저모음	ㅐ		ㅏ	

◆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 / 후설 모음
 ■ 입술의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 / 원순 모음
 ●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 중모음 / 저모음

(문제19) 정답: ①

(문제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2017국가직9 마책형 문20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20)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가) - (다) - (나) - (라)
- ④ (가) - (라) - (나) - (다)

(문제20)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9 마책형 문19 / 2017사회복지직 c책형 문19)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O)
- ③ (가) - (다) - (나) - (라)
- ④ (가) - (라) - (나) - (다)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 보기 모두 (가)부터 시작한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 이러한 순서 문제를 풀 때는 낱말이나 문장이 꼬리를 무는 것을 잘 봐야 한다.

가	저것 ~ 이것, 저것 ~ 이것
나	저것 ~ 이것, 이것 ~ 저것 ~ 헤시가 말하는 ~
라	헤시가 말하듯이 ~ <u>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u> (상대적인 내용)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u>이런 상대적인 방법</u> ~

(문제20) 정답: ②

- 영보이 저서 -

◆ 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판매 중 >

◆ 영보이 공무원 한자와 그의 친구들 < 판매 중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실전문제집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실전문제집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실전문제집 < 출간 예정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보이 국어' 검색하면 블로그 나옵니다. >